

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八)

李相殷

自然界的 法則은 우리가 □與한 것이기 때문에 自然界 法則에 對한 우리의 知識은 先驗的의 것이 된다. 우리는 先驗的으로 이 世界는 반듯이 永遠히 某種理解 할 수 있는 法則 裡面에서 서로 連結 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先驗的으로 우리의 經驗이 반듯이 永遠히 一定한 秩序的 時間, 空間 中の 事物이며 體와 相因과 果..... 等の 關係로 서로 聯關하며 서로 影響주는 事物일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自然科學 上 先驗的 綜合判斷이 如何히 可能한가의 問題를 解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우리의 悟性은 다만 自然界에 對해서만 法則을 주었슬 뿐이오, 自然界를 超越해서 法則을 주지 안었다. 그럼으로 範疇의 應用은 다만 經驗界에 한 局限되였고 經驗界의 範圍를 지나서는 應用 할 수 없다. 超經驗的 世界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거기는 範疇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 理致로 미루어서 우리는 以下의 斷言을 엿을 수도 있다. 卽 우리는 經驗의 形式은 先驗的으로 알 수 잇서도 經驗의 內容이 무엇일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感官이 將次 무슨 材料를 供給할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잇는 것은 이것 뿐이다. --感官의 供給하는 材料 (知覺)야 무엇이든지 우리의 心靈은 반듯이 自己의 必然的 法則에 依하여 그것을 組織한다는 것이다.

여기 이르러 一個의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칸트에 依하면 範疇는 純粹히 理性的의 것이오, 感覺은 完全히 經驗的의 것이다. 二者의 種類가 이처럼 갖지 안은대 엿더케 範疇를 經驗에 應用 할 수 잇을까? 이 사이에는 同時에 純粹的이오, 또 經驗的인 一種의 媒介體의 職務에 適습한 물건이 무엇인가? 칸트는 時間形式(Timeform)이라 하였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의 모든 觀念은 모다 時間形式의 支配를 받고 우리의 모든 經驗은 모다 時間 形式을 經由하여 엿는 것임으로 悟性은 感官의 經驗으로부터 關係를 發生하라면 반듯이

時間形式을 쓰지 않을 수 없다. 悟性은 純粹時間의 形式을 비러서 自己의 概念을 構想 (Toimays)한다. 맞귀 말하면 悟性은 某種의 時間的 關係에서 自己의 範疇를 想像하는 것이다. 故로 每個의 範疇는 모다 自己의게 相當한 圖形을 時間關係로서 構成하여 있다. 一一히 例을 □하야 말하면 左와 如하다.

- 一. 分量 範疇의 圖形을 構成한 時間 關係는 時間의 □列或은 數目이오,
- 二. 性質 範疇의 圖形을 構成한 時間 關係는 時間의 內前이니 時間 中에 무엇이 있는 때 實在가 되고 아모 것도 없는 때 否定이 되며
- 三. 關係 範疇의 圖形을 構成 時間 關係는 時間의 秩序이니 一定한 時間 關係는 一定한 事物의 次序를 表示한다. 實體은 時間 中의 永恆이오, 因果는 時間 中의 相續이오, 交互는 時間 中의 同時的 存在이며
- 四. 情狀 範疇는 事物의 時間 全體에 對한 關係로서 그 圖形을 構成식힐 수 있나니 可能은 卽 事物의 任何 時間 內에서의 存在이오, 實在는 卽 一定 時間 內에서의 存在이오, 必然은 卽 모든 時間에서의 存在이다.

이와 加치 每個의 範疇가 모다 時間 形式의 媒介가 잇기 故로 經驗的인 直觀에 應用 할 수 있다.

.....

第四節. 理性和 및 그 觀念

以上 兩節에 依야 우리는 經驗世界에 對하야 確實히 必然 普遍的 知識을 엿을 수 있는 것을 알엇스며 數學과 自然科學이 成立 할 수 잇는 事를 알엇다. 人類의 心靈은 決코 『휴-□』一統의 생각한 바와 加치 그리케 無能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經驗의 主將 『휴-□』에 對한 칸트의 答狀이다. 그러나 이와 反하야 唯理派의 『라이푸니츠』와 『울□』等은 또 眞實의 心靈의 能을 놓히어 萬能으로 알게 되야 드디□ 大한 形而上學을 建築하고 그 建築의 基礎가 □間한지 안한지 일즉 생각해 보지도 안엇다. 칸트는 그 基礎에 對하야 精密한 檢討를 한 試結果 엿은 結論이 唯理派로 더부러 相反하얏스니 卽 知識論에 잇서서 形而上學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이하 원문해독불가).....의 理由는 以上 兩節에서(이하 원문해독불가)..... 말하엿다할 수 있다. 이제 나머지 折半의 理由를 本□에서 말하려 한다.

우에서 우리는 吾人의 알 수 잇는 것은 다만 우리가 經驗 할 수 잇는 것에 限하고 經驗치 못할 想知覺의 本體는 알 수 업다는 것을 말엇다. 形而上學이 研究하는 것은 바로 이 알 수 업는 事이다. 이 알 수 업는 事는 알아하지 말어야 본대 淸혼 것이지만 人類의 心靈이란 異常한 것이어서 經驗계의 知覺만으로 滿足치 안하고 항상 超經驗의 世界까지 드러가서 探驗해 보랴한

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思想은 두 方面이 잇스니 一方은 現實이요, 一方은 理想이다. 心靈은 다만 感性和 悟性으로 써 이 現實만을 □付 할 썬 아니라 한층 더 높은 理性으로 써 理想에로 □進하라 한다. 形而上學은 理性의 이런 要求를 應해야 생긴 것이다. 그러나 正히 이 要求가 넘우 懇切하기 때문에 形而上學은 도리혀 成立되지 못하였다.

人類의 心靈은 三大 知識 機關이 있다. 感性은 知覺을 供給하는 機關이요, 悟性은 知覺을 思惟하는 機關이요, 理性으로 말하면 悟性이 었은 바 知識을 自己의 所有한 觀念에 依하여 그것을 綜合 統一하여 最後의 結論을 求하는 機關이다. 그러므로 理性은 最高의 綜合機關이다. 그것이 要求하는 것은 最大의 統一과 最大의 完成이다. 換言하면 理性의 求하는 것은 絶對이다. 그러나 理性의 危險이 正히 이곳에 있다. 絶對를 渴求하는 까닭에 恒常 合理的 範圍를 벗어나서 超經驗的 世界에 飛□하여 그 結論을 求하라 한다. 그러나 悟性이 供給해준 概念은 原來 經驗界에서 벗게 使用치 못하는 것임으로 一旦 超 經驗界에 가서는 모다 不適用한 것이 되고 만다. 왜 그러나 하면 그것은 빈 形式 썬이요, 內容이 업는 까닭이다. 例컨대 因果 體相等 概念은 現象界에서 使用 할 썬는 모다 意義잇는 것이지만 本體界에 使用한다면 썬혀 아무런 意義도 업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理性은 항상 이 點을 忘却하여 三覺世界에서만 有數한 概念으로서 超經驗的 世界를 說明하려 한다. 그리하여 本體와 現象을 混同하고 理想과 現實을 誤認하여 드디어 種種誤謬에 싸 지나니 칸트는 그것을 超越的 幻想이라고 稱하였다. 『超越的 辨證法』 一篇의 目的은 이 幻想을 暴露하려 함에 잇섰다.